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방안



- 일시 : 2021년 5월 28일(금) 오후 14:00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주 최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후 원  보건복지부

공동주관  **KCRP**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방안 세미나



사회 : 나선영 운영지원단 국장

14:00~14:10	<p>인사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p> <p>격려사 성공스님 한국종교인지도자 협의회 운영위원장</p> <p>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장</p>
14:10~14:30	<p>주제발표1 유수현 숭실대학교 명예교수</p> <p>↳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방안</p>
14:30~14:50	<p>주제발표2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p> <p>↳ 우리나라 자살현황과 원인분석</p>
14:50~15:35	<p>지정토론회 좌장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p> <p>토론자 조성돈 기독교자살예방센터 LIFEHOPE 대표</p> <p>선업스님 불교상담개발원 원장</p> <p>이공현 원불교 문화사회부 교무</p> <p>허종은 유교 성균관 한림원 원장</p> <p>김진순 천도교중앙총부 교구장</p> <p>차바우나 천주교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센터장</p> <p>윤승용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위원장</p> <p>서일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p> <p>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p>
15:35~15:55	<p>종합토론 및 질의응답</p>
15:55~16:00	<p>폐회</p>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방안

유수현 송실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 방안

유 수 현¹⁾

- 목 차 -

- | | |
|---------------------|--------------------------|
| 1. 시작하는 말 | 4. 활용 가능한 종교계의 자원체계 |
| 2. 자살의 원인과 종교계의 입장 | 5.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 프로그램 |
| 3. 종교의 본질과 자살예방의 관계 | 6. 맺는 말 |

1.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편이며, 그 순위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자살률을 낮추고자 하는 목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자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각 계 각 층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삶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계의 협력이 무엇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발제자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자살의 예방은 생명의 존엄성을 바로 인식하고 자살의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며,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시킴으로 가능할 것이다. 사랑과 자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종교의 본질과 기능이 자살예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보고, 종교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체계를 자살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므로 종교계의 협력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자살의 원인과 종교계의 입장

자살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살의 원인은 왜곡된 신념과 교리에의 몰입, 가치관 혼란, 인생의 무가치함, 삶의 의미 상실, 좌절감, 절망, 감정조절의 실패, 정신불건강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집단적 차원에서는 집단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 조직 충성심, 과도한 책임감과 자기희생, 의협심, 사회적 배제와 소외 등을 자살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1) 한국생명문화학회 이사장, 전 숭실대 교수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원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생활방편의 상실, 공동체 의식의 붕괴, 자살 도구나 구조물과 환경의 접근 용이성, 생명경시의 문화와 사회풍조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살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자를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는 태도, 또는 유족에 대한 편견과 낙인 등이 후속 자살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자살위험예측수단의 미흡과 자살예방 정책이나 대응프로그램의 미비,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생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 가운데,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치관,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문화 등이 잘못 된 경우, 그리고 생의 의욕을 좌절시키는 사회적 환경이나 지지체계의 부족 문제 등은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종교의 관심사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종교계의 교육과 계몽, 교회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사회적 약자를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종교의 본질과 자살예방의 관계

1). 종교(宗敎)의 본질과 기능

인간은 인식적인 한계와 능력적인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절대자의 존재를 믿고 또 그 절대자를 추종하는 행위에서 종교가 출발했다. 종교는 특정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를 말한다. 이 신앙체계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다.

종교는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한다.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결합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통제와 질서 유지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때로는 기존 질서의 모순을 지적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므로 사회변동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교의 순기능이 한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

2). 생명 존중 가치의 교훈

모든 종교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신(神)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기에 어느 종교에서도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과 살생을 절대 금하며, 자살은 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미화시킬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3). 사회 통합의 기능 발휘

종교는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 공동체 구성원간의 결속과 통합을 가르치고 있다. 신앙공동체에서 어느 한 구성원을 미워하고 소외시키며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에서는 고아, 과부, 장애인, 만성질환자,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종교집단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여 삶의 의욕을 잃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4. 활용 가능한 종교계의 자원체계

종교집단은 신앙체계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물적·시설·조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자원체계는 각 종교의 존재 목적과 충돌되지 않는 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활용될 수도 있다.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교회나 사찰의 인적·물적, 시설·조직 자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적인 집회

어느 종교집단이든지 절대자에 대한 예배의식을 위한 집회가 있다. 이 집회 시간은 신앙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모이고, 그들에게 절대자의 교훈과 교리를 설파하여 바르게 사는 방법을 따르도록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과 자비로 섬기며 하나가 되도록 이끌고 결속을 다지므로 그 조직을 강화시켜 나간다. 이 시간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이며, 조직화된 신앙공동체로 하여금 생명존중 문화를 보듬고 지켜나가도록 저들의 실천역량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이 집회는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신앙공동체의 회동이므로 각 세대에 맞게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유용한 자원체계인 것이다.

2). 구성원 조직 자원

종교집단은 신앙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을 연령이나 거주 지역, 또는 특수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이 있다. 예를 들면,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봉사부, 신도회, 남·여 전도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조직자원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원조하는 일에 투입될 수 있다. 이 조직을 통하여 신앙공동체 안과 밖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우어 주며 용기를 갖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을 Gatekeeper로 양성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유용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인적·물적·시설자원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는 성직자를 비롯하여 교육자, 의료인, 법률가, 정치가, 방송예술회, 음악가, 스포츠맨, 경찰, 사회운동가, 사회복지사, 공무원, 기업인 등 각 계 각 층의 다양한 인재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생명존중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들이다. 또한 종교집단은 그 나름대로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해당 집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다수의 사람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 공간들은 예배의식을 집행하지 않는 시간에 생명존중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회나 사찰의 음향시설이나 영상시설 등 사무집기나 비품도 필요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인 것이다.

5.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 프로그램

자살예방을 위해 종교계에서는 자살시도자나 가족들은 물론, 이웃과 교우 집단 그리고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상담, 위기 대응, 지지적 환경 조성,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교육과 계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는 종교계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개입대상에 따라 도울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 프로그램들을 다음 <표1>과 같이 망라하여 보았다.

<표1>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분야

주요 협력분야	협력할 프로그램	내용 및 대상
인식개선사업	자살예방교육	종교 집회 활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신도 조직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	기념 행사 유치, 참여, 협력
	생명존중문화조성 교육	신도, 교인 계몽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신도조직 네트워크 구축	남여신도회, 전도회, 선교회
	전문기관 의뢰, 연계체계 구축	경찰,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자방센터, 정신재활기관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 관리체계 마련	위기상담, 긴급지원	전화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의료비, 치료비 지원, 주민센터
	자살시도자, 유족 사후관리	정서적 지지(방문, 전화)상담
	Shelter 운영	쉼터, 일시적 피난처 제공
자살 수단 접근차단	지역 지킴이 활동	위험물질, 독극물 취급점 모니터링
	자원봉사단 조직 관리	숙박업소 협력
	불량환경 개선 정책제안	고층건축구조물, 교량,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각 종교집단의 인적, 물적, 시설, 조직적 자원의 규모와 활용 여건에 따라 적절한 사업을 선택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는 여기에서는 종교계가 현 상황에서 협력하여 전개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생명존중 인식의 개선 활동

자살예방은 우선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바로 인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든 종교는 생명의 존엄성을 중심 교훈으로 삼고 있으며, 생명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도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직자들은 정기적인 집회를 통해 신도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는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다.

2). 신도들의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운동

종교집단은 생명존중문화의 확산과 생명경시의 사회적 풍조를 퇴치하는 의식개혁 운동에 신도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함으로 자살예방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 또 교회나 사찰의 시설자원을 이 확산운동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운동을 이끄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함으로 협력할 수 있다.

3). 유명인의 생명존중의식 고취

그동안 자살의 문제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이들에 대해 집중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지도층이거나 유명인들의 자살은 그 수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파급효과는 더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 전략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기업의 임원 등 사회지도자들과 노동운동 현장에서 분신자살의 경우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므로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또 유명연예인의 경우는 견디기 어려운 좌절감이나 비난의 여론을 감내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므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자살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생명경시풍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실도피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지도층에게 생명존중의식을 고취하고 조직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충성심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와도 속내를 드러내놓고 도움 받을 상담자가 없거나,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려 전문가의 도움을 꺼려하기도 한다. 사회지도층이나 유명인은 일반 상담원이나 전문가들 보다 종교지도자나 성직자들과의 만남이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지도자 모임을 조직하여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협력할 수 있다.

4). 자살위기자의 조기발견, 연계 의뢰 및 지원

신앙공동체의 촘촘한 조직자원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만큼 절박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므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자살시도자의 위급성이나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전문조직(의료계, 정신건강전문가 조직)에 의뢰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

5). 사회통합을 위한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신앙공동체는 물론 지역사회 내의 독거노인, 고령자, 만성질환자, 사회경제적 빈곤자, 집단 괴롭힘이나 범죄의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보듬어 사회적 통합함으로 협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종교계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작동시킴으로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정서적으로 고립되었거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과 최근에 가족이나 연인을 상실한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보듬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종교계의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상담자원봉사자로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신앙공동체 속으로 포용하고 통합함으로 자살예방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

6). Shelter의 운영 지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단기 피난처와 쉼터가 필요하다. 종교집단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단기 피난처나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Shelter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하므로 자살예방에 협력할 수 있다.

7). 자살수단의 접근차단

종교계에서는 교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살고위험자가 자살수단에 용이하게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그 과정을 차단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즉, 자살과 직결되는 위험물질이나 독극물 취급점, 고층구조물이나 교량, 고립된 장소와 불량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므로 지역 지킴이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위험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8). 자살예방정책 추진에 영향력 행사

종교계의 합치된 의견은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 수립과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생명존중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기구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협력기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사업예산 등의 지원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종교계는 일치된 목소리로 정부에 법적 근거의 마련과 사업예산 등의 지원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건의활동도 자살예방사업에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6. 맺는 말

자살예방은 생명의 존엄성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종교계의 기능과 부합되는 활동이다. 종교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 조직 자원을 활용하므로 민간부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종교계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①생명존중 인식의 개선, ②생명 존중문화 확산운동, ③유명인의 생명존중의식 고취, ④자살위기자의 조기발견, 연계의뢰 및 지원, ⑤사회통합을 위한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지원, ⑥Shelter의 운영 지원, ⑦자살수단의 접근차단, ⑧자살예방정책 추진에 영향력 행사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종교집단별로 이미 산발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사업의 성과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교계가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을 위해 협력기구가 조직되어야 하고, 그 기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나 사업예산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 협력기구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바라기는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에서는 종교계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여 각 종교집단의 여건에 따라 협업이나 분업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각 종교집단간의 협력을 위한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



우리나라 자살현황과 원인분석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

KFSP

한국 자살 현황과 원인분석

2021. 05. 28.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CONTENTS

1. 한국 자살 현황
2. 경찰 수사기록에 의한 자살원인 분석(2013~2017년)

1. 한국 자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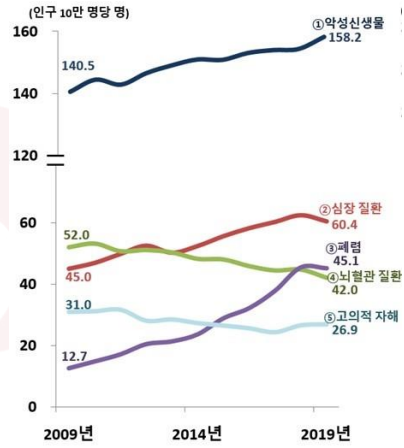


1-1. 2019년 사망원인 순위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순위(전년대비)	사망원인	사망률
1	악성신생물(암)	158.2
2	심장질환	60.4
3	폐렴	45.1
4	뇌혈관 질환	42.0
5	고의적 자해(자살)	26.9
6	당뇨병	15.8
7(+2)	알츠하이머병	13.1
8	간질환	12.7
9	만성하기도 질환	12.0
10	고혈압성 질환	11.0

출처: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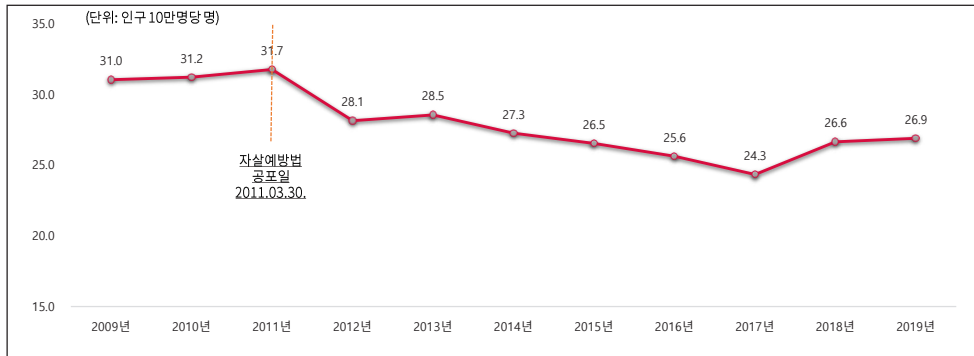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계

3

1. 한국 자살 현황



1-2. 자살률 변화 추이(2009~2019년)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명)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살자 수	15,412	15,566	15,906	14,160	14,427	13,836	13,513	13,092	12,463	13,670	13,799 (+0.9%)
자살률	31.0	31.2	31.7	28.1	28.5	27.3	26.5	25.6	24.3	26.6	26.9 (+0.9%)

출처: 통계청, 2009~2019년 사망원인통계

4

1. 한국 자살 현황

1-3. 전년 동월 대비 자살사망자 20%이상 증가 주요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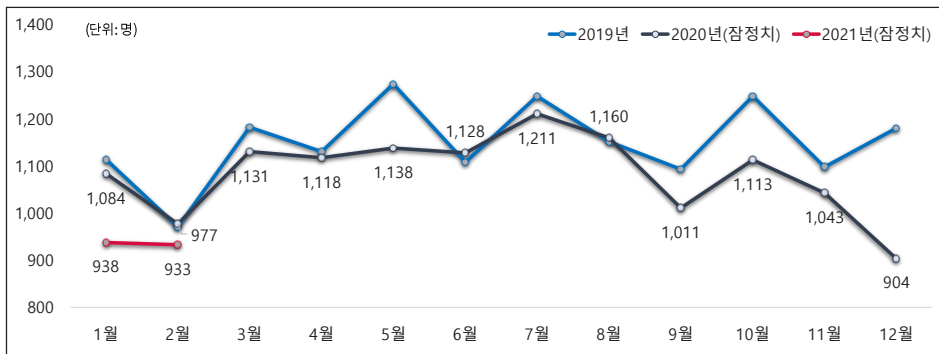
시점	1996.01	1998.01~12	2002.01~12	2003.01~12	2006.01	2007.02	2008.10	08.11~09.04	2009.05	2013.01
사망자 수 (명)	426	719	718	10,973	853	1,189	1,793	1,216	1,619	1,275
전년대비 증감률(%)	49.5	42.1	25.2	53.9(8월)	22.4	45.7	85.4	40.1	59.0	25.2
주요사건	해서지일 故김광석 자살	외환위기	카드대란	신용불량 자 발생 (360만명)	(전월) 황우석 줄기세포 거짓발표	故정다빈 자살	故최진실 자살	미국발 금 용위기	故노무현 前대통령 자살	故조성민 자살

유명한 자살사건 (베르테르 효과) 및 경기부진, 실업 증가 등이 자살률에 부정적 영향 추정

※ 2019. 11 故구하라 자살: 전년 동기간(11.24~12.23) 대비 17.1% 증가

1. 한국 자살 현황

1-4. 사망자수 추이(2019~2021년 2월까지)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2019년	1,114	971	1,182	1,131	1,274	1,108	1,248	1,152	1,093	1,248	1,098	1,180	13,799
2020년 (잠정치)	1,084	977	1,131	1,118	1,138	1,128	1,211	1,160	1,011	1,113	1,043	904	13,018
2021년 (잠정치)	938	933	-	-	-	-	-	-	-	-	-	-	1,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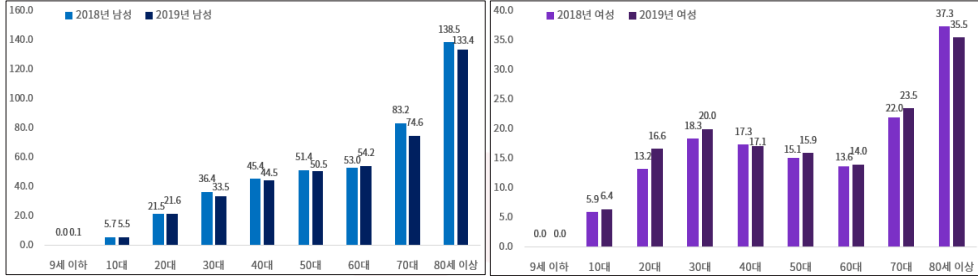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성/월별 특정 사망원인(고의적 자해) 사망자수

1. 한국 자살 현황



1-5. 성/연령별 자살률 현황(2018~2019년)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성별	연령	2018년	2019년	18년 대비 증감률
남성	9세 이하	0	0.1	106.4
	10대	5.7	5.5	-3.2
	20대	21.5	21.6	0.7
	30대	36.4	33.5	-7.8
	40대	45.4	44.5	-1.8
	50대	51.4	50.5	-1.7
	60대	53.0	54.2	2.3
	70대	83.2	74.6	-10.4
	80대 이상	138.5	133.4	-3.7
	전체	38.5	38.0	-1.4
여성	9세 이하	0.0	0.0	-
	10대	5.9	6.4	8.8
	20대	13.2	16.6	25.5
	30대	18.3	20.0	9.3
	40대	17.3	17.1	-0.7
	50대	15.1	15.9	5.0
	60대	13.6	14.0	2.8
	70대	22.0	23.5	6.8
	80대 이상	37.3	35.5	-5.0
	전체	14.8	15.8	6.7

출처: 통계청, 2018~2019년 사망원인통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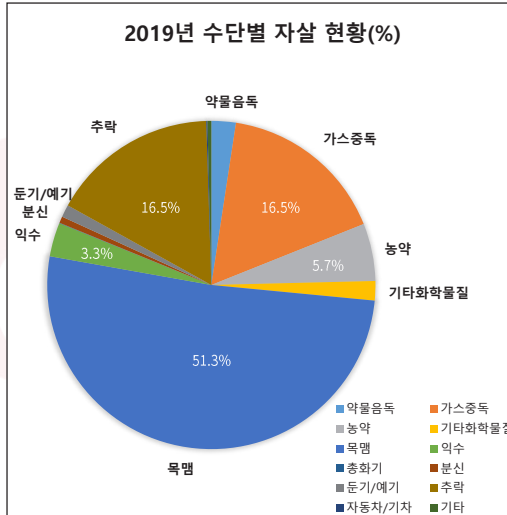
1. 한국 자살 현황



1-6. 수단별 현황(2018~2019년)

(단위: 명, %)

수단	2018년	2019년	18년 대비 증감률
약물음독	306(2.2)	332(2.4)	8.5
가스중독	2,152(15.7)	2,282(16.5)	6.0
농약	806(5.9)	782(5.7)	-3.0
기타화학물질	251(1.8)	264(1.9)	5.2
목뎀	7,125(52.1)	7,076(51.3)	-0.7
익수	479(3.5)	461(3.3)	-3.8
총화기	14(0.1)	6(0.0)	-57.1
분신	78(0.6)	89(0.6)	14.1
둔기/예기	137(1.0)	169(1.2)	23.4
추락	2,273(16.6)	2,270(16.5)	-0.1
자동차/기차	11(0.1)	16(0.1)	45.5
기타	38(0.3)	52(0.4)	36.8
전체	13,670	13,799	0.9



출처: 통계청, 2018~2019년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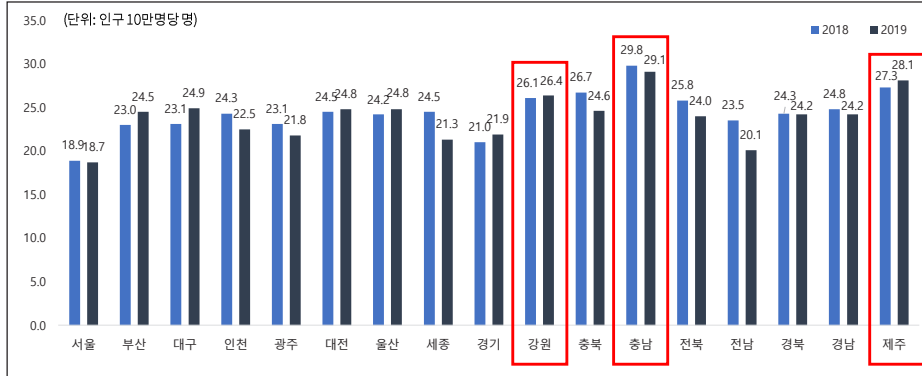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계

8

1. 한국 자살 현황



1-7. 지역별 자살률(연령표준화) 비교(2018~2019년)



년도	연령표준화 자살률 높은 지역	연령표준화 자살률 낮은 지역	증가율 높은 지역	감소율 높은 지역
2018년	충남(1), 제주(2), 충북(3)	서울(1), 경기(2), 부산(3)	대구(7.8%) 부산(6.5%) 경기(4.3%)	전남(-14.5%) 세종(-13.1%) 충북(-7.9%)
2019년	충남(1), 제주(2), 강원(3)	서울(1), 전남(2), 세종(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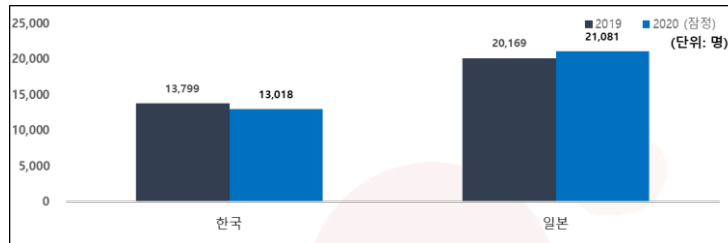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8~2019년 사망원인통계

9

1. 한국 자살 현황



1-8. 주요 국가별 현황(2018~2020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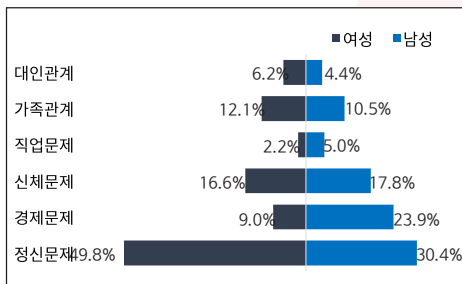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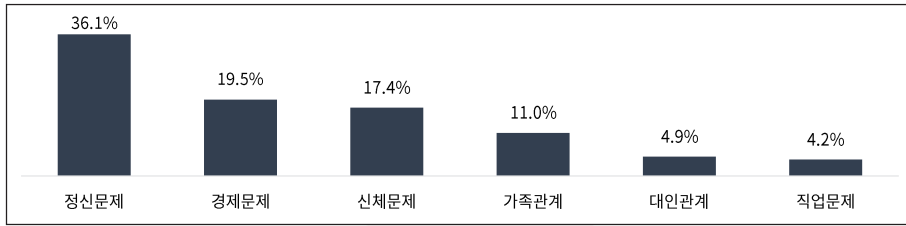
구분		한국		일본	
		자살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살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9	1분기	3,267	-6.5	5,155	-1.7
	2분기	3,513	-3.6	5,307	-2.2
	3분기	3,493	4.1	5,058	-2.0
	4분기	3,526	11.1	4,649	-7.1
2020	1분기	3,192	-2.3	4,908	-4.8
	2분기	3,384	-3.7	4,670	-12.0
	3분기	3,382	-3.2	5,685	12.4
	4분기	3,060	-13.2	5,818	25.1

10

2. 경찰 수사기록에 의한 자살원인 분석(2013~2017년)



2-1. 주요자살원인 순위



<주요자살원인 상위 3개 순위>

- (전체) 정신문제(36.1%) > 경제문제(19.5%) > 신체문제(17.4%)
- (남성) 정신문제(30.4%) > 경제문제(23.9%) > 신체문제(17.8%)
- (여성) 정신문제(49.8%) > 신체문제(16.6%) > 가족관계(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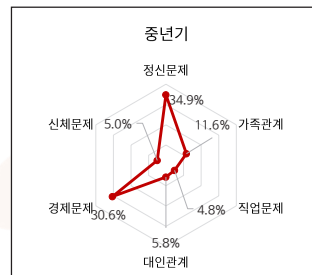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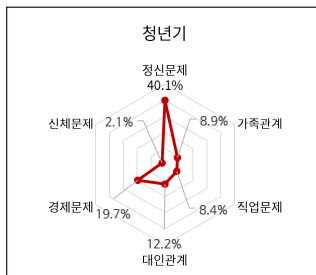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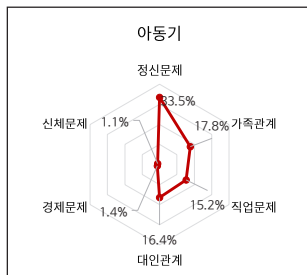
출처: 2013~2017년 경찰 수사기록 자살사망자데이터

11

2. 경찰 수사기록에 의한 자살원인 분석(2013~2017년)



2-2. 생애주기에 따른 자살주요원인



출처: 2013~2017년 경찰 수사기록 자살사망자데이터

<정신문제를 제외한 생애주기 별 상위 3개 순위>

- (아동기) 가족관계(17.8%) > 대인관계(16.4%) > 직업(학업)문제(15.2%)
- (청년기) 경제문제(19.7%) > 대인관계(12.2%) > 가족관계(8.9%)
- (중년기) 경제문제(30.6%) > 가족관계(11.6%) > 대인관계(5.8%)

- > 아동기는 부모와 애착관계 및 훈육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에 가족관계가 큰 비율 차지
- > 경제활동이 시작되는 청년기부터 경제문제 비중 증가

12

2. 경찰 수사기록에 의한 자살원인 분석(2013~2017년)



2-2. 생애주기에 따른 자살주요원인



출처: 2013~2017년 경찰 자살사망자전수조사 데이터

- (장년기) 경제문제(24.0%) > 신체문제(13.9%) > 가족관계(10.8%)
- (노년기) 신체문제(43.5%) > 가족관계(11.4%) > 경제문제(4.4%)

- ◆ 생애주기에 따른 자살주요원인이 다르게 작용
- ◆ 따라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접근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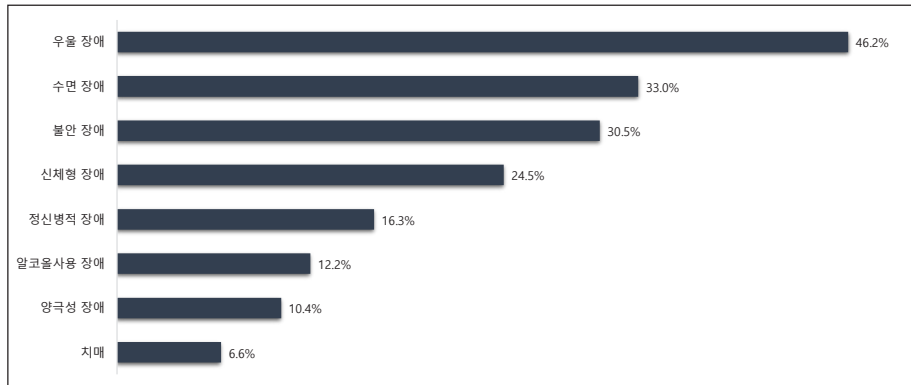
- 청년기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이어지는 장년기까지 경제문제 비중이 높음
- 노년기의 경우 신체문제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

13

2. 경찰 수사기록에 의한 자살원인 분석(2013~2017년)



2-3. 세부정신건강문제 순위



출처: 2013~2017년 경찰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데이터 중 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번호매칭 데이터 활용(중복항목)

<정신건강문제 상위 3개 순위>

- 우울장애(46.2%) > 수면장애(33.0%) > 불안장애(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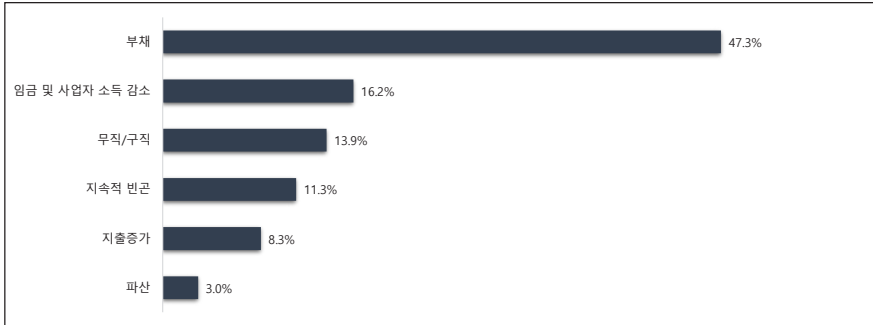
- 정신문제가 직접원인이더라도, 이를 유발하는 요인대응 필요

14

2. 경찰 수사기록에 의한 자살원인 분석(2013~2017년)



2-4. 세부경제문제 순위



출처: 2013~2017년 경찰 자살사망자전수조사데이터(중복항목)

<경제문제 상위 3개 순위>

- 부채(47.3%) > 임금 및 사업자 소득 감소(16.2%) > 무직/구직(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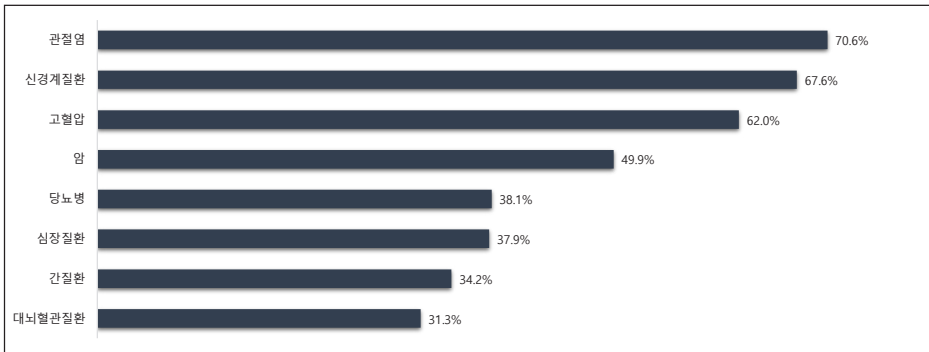
- > 급격한 상황변화 아닌 안정성이 확보 안된 경우가 대부분임 (및 / 직업 없음 / 수입감소)
- > 단순 지원금 개념보단 경제활동의 지속 영위 조치필요

15

2. 경찰 수사기록에 의한 자살원인 분석(2013~2017년)



2-5. 세부신체건강문제 순위



출처: 2013~2017년 경찰 자살사망자전수조사데이터 중 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번호매칭 데이터활용(중복항목)

<신체문제 상위 3개 순위>

- 관절염(70.6%) > 신경계질환(67.6%) > 고혈압(62.0%)

- > 노인성 질환(관절염 및 신경계질환) 비중이 높음
- > 노년기의 최대 주요원인인 신체문제를 보이는 것과 상통
- > 합병증이 주를 이룸을 시사함

16

2. 경찰 수사기록에 의한 자살원인 분석(2013~2017년)



2-7. 결론

- ▶ 정신건강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 그러나 단순한 개인내면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질환(우울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신체형 장애)이 다수
- ▶ 스트레스, 위기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 성별, 연령(생애주기)에 따라 정신문제를 제외 시, 다양한 주요원인이 1순위가 됨
- ▶ 자살에 대한 일반대응이 아닌 각 사회집단군 별 요구되는 특별대응 방안이 필요함



지정토론

기독교자살예방센터 LIFEHOPE 조성돈 대표

불교상담개발원 선업스님

원불교 이공현 교무

유교 성균관 허종은 원장

천도교중앙총부 김진순 교구장

천주교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차바우나 신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윤승용 위원장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서일환 과장

한국자살예방협회 기선완 회장

종교별 자살예방센터를 제안한다.

조성돈 대표
(Life Hope 자살예방센터)

유수현 교수님과 황태연 이사장님의 귀한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수현 교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살예방에 있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종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의와 관련하여 주장하고 싶은 것은 ‘종교별 자살예방센터’의 설립입니다. 현재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기반 기관들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직능별 자살예방센터를 세울 것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종교인구는 43.9%입니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가 970만 명, 불교가 760만 명, 천주교가 390만 명, 원불교가 8.4만 명, 유교가 7.6만 명, 천도교가 6.6만 명 등입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는 그 인구가 대도시 수준이고, 원불교나 유교, 그리고 천도교는 소도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들이 조직되어 있고, 성직자들에 의해서 지도가 되며, 동일한 신념에 다양한 교육과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수현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생명에 대한 가치 공유가 가능한 집단입니다.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자발적인 참여자라는 점입니다.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면서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종교에 지지를 보내는 이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지역보다도 중요한 자살예방의 대상이며,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 종교를 매개로 하는 자살예방은 인구의 43.9%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종교인들 역시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영향은 줄 수 있어도, 실제로 없을 수는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종교적 신념 가운데 그 종교의 가르침에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종교를 매개로 하여 자살예방 교육이나 캠페인을 벌인다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성직자들이 자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생명 가치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43.9%에 이르는 인구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들을 순회하며 자살예방교육이나 설교를 하게 되는데, 대략 1년이면 1-2만 명 가량을 만나게 됩니다.

2. 종교는 조직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를 예를 든다면, 목사와 장로의 행정조직이 있고, 나이와 성별로 구성된 친목모임이 있고, 성가대 교사 등 교회 내 봉사 단위의 모임, 외부를 향한 봉사모임, 지역별 소모임, 직능별 소모임 등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작은 모임들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돌려 생각해 보면, 그런 소모임마다 인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준비된 게이트키퍼들이 있습니다.

3. 종교는 그 자발성 덕분에 외부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봉사활동에는 큰 의미를 두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라이프호프는 개인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설립이 된 지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소속된 교단이나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기독교 내에서 자리를 잡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라이프워킹에 참여한 인원이 약 5만 명 가량 되고, 중고등학교에서 라이프호프의 생명보듬기초교육을 통해 2.5만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외에도 마포대교 기도회나 다양한 캠페인 사업 등을 통한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확실히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자살예방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자살은 생명에 관한 가치관의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큼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예방에 있어서 종교계에 대한 기대나 요구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그런 기대와 요구들은, 그냥 기대와 요구에서 머물렀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나 진정성 있는 지원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행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살예방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시공을 초월하여 움직이고 사고하고 있는데, 지역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네트워크, 특히 종교기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능별, 즉 군대, 소방서, 경찰, 회사, 학교, 연령별 등의 자살예방센터와 종교별 자살예방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맞는, 즉 그러한 네트워크에 적합한 자살예방 정책과 활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신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1천만 명에 부합되는 수준의 자살예방센터 설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자원봉사 시스템을 넘어서 각 종교에 맞는 정책과 종교별 예방활동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한 불교계의 활동 현황과 과제

선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목차

- I 들어가면서
- II 현황
- III 과제
- IV 나가면서

I 들어가면서

-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삶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계의 협력이 무엇보다 더 절실하다’는 발제자의 표현에 ‘불교계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먼저 현재 불교계 특히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살예방활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자살을 구조적인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나은 시스템 기반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I 현황

1. 캠페인
2. 교육
3. 모임

불교의 자살예방활동의 기본 구조



1. 생명살림: 캠페인

- 1) 캠페인 모델
- 2) 현황

1) 캠페인 모델

▣ 자살예방 미디어 캠페인 참고 모델

예) 미국 보건복지부의 효과적인 보건커뮤니케이션 캠페인 기획 가이드라인(2002)

미국 보건복지부의 효과적인 보건커뮤니케이션 캠페인 기획 가이드라인(2002)	분석기준(분석틀)
<p>■ 목표를 효과적으로 정의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인 목표(larger goal)가 무엇인지 파악하라. - 포괄적인 목표의 어떤 부분을 캠페인에 의해 이루고자 하는지 결정하라. - 캠페인의 구체적인 과제(specific objectives)를 설정하라. 	<p>■ 목표의 명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인 목표 - 캠페인 과제
<p>■ 표적 집단(intended audience)을 효과적으로 설정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단을 파악하라. - 메시지를 정교화할 수 있는 하부집단을 고려하라. - 표적 집단에 관해 가능한 한 자세히 파악하라. 	<p>■ 표적화 전략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적 집단에 따른 메시지의 차별화 - 기타 표적화 방법
<p>■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창조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의 목표와 표적 집단에 적합할 만한 메시지를 자유롭게 논의하라. - 표적 집단에 영향을 줄 만한 소통통로와 자원을 파악하라. - 표적 집단에게 메시지가 가장 잘 전달될 만한 시기를 고려하고, 그에 따라 메시지를 준비하라. - 몇 개의 메시지를 선별해 사전검증할 준비를 하라. 	<p>■ 메시지 전략의 적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슬로건 - 소통매체
<p>■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이행(implement)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 출범 때 세운 계획을 준수하라. - 캠페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파트너 및 미디어와 소통하라. - 캠페인 초반부터 계획 및 진행 과정에 관한 평가를 시작하라. 	<p>■ 이행의 효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 - 효과성 평가

자살예방 캠페인의 특징적 내용 분석

구분		한국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 예방 캠페인	불교계 자살 예방 캠페인
목표의 명확성	포괄적 목표	삶의 가치를 널리 알려 자살을 예방함	붓다로 살자
	캠페인 과제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의 예방 가능성을 인식시킴	同苦同樂
표적화 전략의 적절성	메시지 차별화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 자료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용으로 구분하여 제작	
	기타 표적화 방법	표적집단에 대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메시지 전략의 적합성	대표 슬로건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몸·마음·심
	소통 매체	방송매체(TV 및 라디오), 인터넷 매체(홈페이지, 동영상 등), 인쇄매체	
이행의 효율성	파트너쉽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의 민 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앙 및 지방 간의 역할 분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효과성 평가	-사후평가 실시 -사후 평가보고서 발행	

2) 현황

- ① 매체와 함께하는 생명살림법회
- ② 매체와 함께하는 열린 포럼
- ③ 보건소-종교단체의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 ④ 325 및 세계자살유가족의 날 행사 진행 및 홍보 활동

2. 생명지킴: 교육

- 1) 생명지킴이 교육
- 2) 성직자 인식 개선 교육
- 3)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

3. 생명이음: 모임

- 1) 대상자의 위로와 회복을 위한 종교 예식
- 2) 자살유가족(생존자) 명상 자조모임(차명상, 표현명상)
- 3) 자살유가족(생존자) 템플스테이
- 4) 생명이음 청진기
- 5) 생명지킴이 활동

Ⅲ 과제

1.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2. 정부 지원 획득
3. NGO역량 통합 및 활성화(외적+내적)
4. 종교간 협력 강화
5. 교계 네트워크 구조화 및 효율화

1.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 WFB(세계불교도우의회)에 생명위원회 설치
 - ▣ WAB(World Alliance of Buddhists)에 자살예방 국제팀 구축
 - ▣ 생명존중의 날 기념 '자살예방 국제포럼' 개최
- 포럼 분과 중 종교분과를 두고 세계적인 생명운동가들을 초청하여 강연 개최.

2. 정부지원

-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 교수)

"자살을 예방하려면 예산, 조직, 인력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진 비정규직이 업무를 많이 맡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 소방, 자살예방센터 등과 힘을 합쳐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3. NGO역량 통합 및 활성화(외적+내적)

- 불교계 생명운동 단체의 설립 및 지원책 마련
 - 생명운동단체의 연대 활동 강화
- 예) 한국생명운동연대 (35개 시민단체로 결성)

4. 종교간 협력 강화

- 살사 프로젝트의 전국화 필요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의 준말
서울시와 종교단체가 함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서울시민 자살예방 안전망을 확립하고자
2014년 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5. 교계 네트워크 구조화 및 효율화

- 불교중앙자살예방센터 활성화
→ 불교자살예방센터의 전국 네트워크 구조화

IV 나가면서

•현재 시스템화 되어있는 불교계의 자살예방활동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 분야로 제안된 8가지 사항(①생명존중 인식의 개선 활동, ②신도들의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운동, ③유명인의 생명존중의식 고취, ④자살위기자의 조기발견, 연계 의뢰 및 지원, ⑤사회통합을 위한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⑥Shelter의 운영 지원, ⑦자살 수단의 접근차단. ⑧자살예방정책 추진에 영향력 행사) 중 기 추진 사항은 더욱 열심히, 미흡한 사항은 보강하여 더더욱 열심히 자살예방활동에 매진하고자 한다.

변화는 방향이다

-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천천히, 멈추지 말고 끝까지

원불교의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이 공 현 교무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원불교의 생명관은 ‘일원(一圓) → 사은(四恩) → 불공(佛供)’으로 구체화 된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일원’은 곧 전 우주를 통해 관통하고 있는 진리의 본체를 말하며 그 진리의 속성이 모든 현상세계에 깃들어 있다고 본다. 원불교의 교조 소태산 대종사(1891~1943)는 ‘일원’의 속성이 현상계를 통해 천지(天地), 부모(父母), 동포(同胞), 법률(法律)의 사은으로 나타나며, 사은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표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태산의 깨달음의 관점에서 볼 때 진리 ‘일원’은 인간의 존재근거이며 인간과 우주 자연과의 유기체적 영원불멸한 순환구조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온전한 생명체로의 절대적인 관계를 본질적인 은혜의 관계로 자각하고 감사와 보은하는 순환된 삶을 만들어내는 상생과 조화를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신앙적 행위의 확충이 불공이다. 즉, 모든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근원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의 자살 풍조나 생명 경시 양태는 진정한 생명관의 이해라고는 할 수 없다.

원불교 개교의 동기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이다. 우리 사회는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정신문명의 황폐화 현상을 직시하고 하루 속히 정신을 개벽하여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을 낙원으로 인도해야 한다. 급속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가치관에 혼란이 일고, 그로 인해 인간성 상실은 물론 인간윤리의 부재 등으로 생명 경시 현상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태산은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 신망도 하며, 번민 망상과 분심 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 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신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나니, 그런고로 천지만업으로 벌여가는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自主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신수양을 하자는 것”(『원불교 정전』, 『정신수양』)이라고 말씀하였다. 따라서 원불교에서 인간이 참 본성을 찾고 자기통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공부’는 중요한 상담치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소태산은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각자가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는 것’,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것’(『원불교 정전』,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지적하고 있다. 즉, 물질적인 풍요는 병적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상관관계로 심각한 치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 팬데믹 등 인류사회의 혼란이 가중되는 현시점에서 다양한 영역의 상담, 치유 기능을 살려내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원불교는 ‘등근마음상담연구소’를 설치하고 “원불교상담학회”를 이끌며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의식함양과 상담적 접근을 지속 가능하도록 전개해 왔다. 특히,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종교인 7대 종교가 뜻을 모아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공동사업으로 발족하며, 원불교의 「자살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교단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원불교 15개 교구 700여 교당과 기관을 통해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교단의 단체들과 연대하며 인간 존중,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운동으로 공존과 상생, 나눔을 통한 불공(佛供)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력을 다져가고 있다.

1)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교육활동이다. 2014년부터 ‘마음이음 살(자)사(랑하자)토론회’를 시작으로 ‘자살 위기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특강 및 워크숍, 자살 위기 상담 교육, 자살 예방을 위한 성직자 인식개선 교육 등 민·관 종교계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방부 등과 협업을 이루며 성과를 이끌고 있다.

2)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이다. 교육활동으로 양성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일반인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원음방송, 원불교신문, 한울안신문 등 교단 내 부 언론 및 단체를 통해 활성화하고 있다.

3) <자살예방을 위한 캠프 및 상담>이다. 자살 예방을 위한 캠프와 상담의 대상은 어린이에서 청소년, 그리고 군 장병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군 생명 존중 캠프’, 각계각층이 함께한 생명 존중 1000인 선언, ‘중년 여성의 우울증 다스리기’ 등 다양한 캠프와 콘서트를 겸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으로 확산하고 있다.

4) <대상별 생명 존중 교육>이다. 자살 위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우울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생명 존중 ASM프로그램, 생명 존중 군 법회 등 사회적으로 급속히 고립되고 자살위험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통해 자살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자살사건, 발생 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자살 시도자나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족, 친지, 친구, 주변인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사회 구성원들까지 직간

접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살로 인한 죽음은 충격과 혼돈, 정서적 고통과 적응상의 어려움을 통해 또 다른 자살위험을 높이게 된다. 먼저, 원불교에서는 천도재(薦度齋)를 통해 생(生)과 사(死)의 원리를 설법으로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영가의 명복을 비는 축원과 유족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의례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죽음에 대하여 인식의 차원을 높이도록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천재지변 등 사고로 많은 인명이 살상된 경우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영가들을 위한 특별 천도·합동위령재(慰靈齋)를 교단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살자 유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상담자 역할과 함께 유가족 자조모임을 통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함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소통 모임을 통해 자칫 반복되기 쉬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자조모임을 이끌고 있다.

원불교는 앞으로도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치유에 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해 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유교의 협력 방안

허 종 은 원장
(성균관 한림원)

1.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 방안」(유수현 한국생명문화학회 이사장, 송실대 명예교수)은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었다. 종교의 본질인 생명 존중 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통하여 종교가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참된 의미를 지적하고, 종교계가 각자의 고유한 조직과 체계를 통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2. 「한국 자살 현황과 원인분석」(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한국자살현황과 원인분석을 자세히 설명하여 종교계가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전체 사망률에서 5위이며, 그 원인 중에 정신문제가 가장 크다는 사실은 종교계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 민주주의 성취, 빠른 사회 변동 등에 따른 성장의 그늘, 불평등, 적응의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소외된 이웃을 종교의 생명 존중 정신으로 포용하고 보살피려는 종교 본연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통찰하게 한다.

3. 유교의 기본 입장

-유교는 초월신이나 내세는 없음. 죽음보다는 삶 자체를 중시하며, 인간 중심의 인도주의.

-인간을 하늘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하늘을 닮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로 규정.

-이상적 인간상 : 군자 - 개인적인 욕심이나 생각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반성과 공부로 통하여 군자와 같은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존재.

-사회적 실천 : 군자가 되어 세상을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실천.

4. 유교의 지원 가능 조직

-234개의 향교

-600여 개의 서원

-유림 조직

-전국 유도회,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등

5. 자살예방을 위한 유교의 협력 방안

-많은 수의 향교와 서원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유교의 생명 존중 정신을 경전공부, 강의 및 유교적 활동을 통하여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 및 내부의 역량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보살핌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전국 유림들에게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지인들과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지역사회의 다른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다차원적인 운동에 참여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운동을 전개. 특히 자살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의 귀중한 경험을 배워 이를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유교는 동아시아의 전통문화로서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낡은 사상체계 또는 가치체계로 간주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지 못했다.

김진순 교구장
(천도교중앙총부)

사람이 곧 한울임을 가르치는 천도교는

천지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의 귀함과 소중함을 알려주고, 자신이 한울님을 모신 한울님을 천도교 주문 수련을 통해 깨우쳐 알게 하는 종교입니다.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이 곧 한울님이 모셔진 내 몸을 죽이는 일이며 곧 한울님을 죽게 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울님을 내유신령 외유기화로 내 몸 안과 밖에 모셔져 계심을 알고 변함없이 부모님 섬기듯 잘 모시는 시천주를 통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최고의 생명존중 종교임을 널리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살예방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1) 자살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품어주고 있는 천지부모를 죽이는 일입니다.

① 한울님 마음으로 사람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以心治心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한울님의 마음이 들어있으니 동학천도를 닦는 우리는 한울님 마음(天心-바르고 밝고 착하고 남을 위해 생각하는 의로운 마음)으로 항상 사람의 마음(治心-희로애락애오욕)을 억제하면 불행, 재화, 재앙, 근심 등 모든 화가 바뀌어 복이되고 경사롭고 길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②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며, 각자 모시고 있지만 옮기지도 못하며 스스로 정성드리고, 공경하며, 믿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최시형 해월 신사님 법설 중 생명(한울님(天), 나(我))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 열가지인 ‘十無天’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울님을 속이지 말라,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어지럽게도 하지 말라, 일찍 죽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주리게 하지 말라,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싫어하게하지도 말고 굴하게도 하지 말라.

2) 자살은 생명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반 우주적 행위입니다.

생명은 우주적 상생관계입니다. 생명(목숨)을 죽이는 것 즉 자살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우주적 상생 관계망을 훼손하고 황폐화 시키는 일로 생명의 자기 발현을 가로 막는 일입니다.

① 한울님(天主)은 자식인 나를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화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내 몸 안에 모셔진 내유신령(內有神靈) 한울님은 생리작용, 심리작용, 정신작용, 성령작용을 끊임 없이 하셔서 내 성심신(性心身-성품, 마음, 몸)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일본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몸 밖에 계신 외유신령(外有神靈)한울님은 천지 만물인 동식물과 공기, 햇볕, 물등등 천지우주를 운행하시고 생성하시어 내가 살 수 있도록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덕분에 내 생명이 유지 되는 것입니다.

② 생명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내 생명은 한울님 기운으로 가득찬 한울님입니다.

다른 생명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도 좌우 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명은 기운이고 우주 가득히 허령 창창한 기운은 일체가 하나로 그 자체가 한울님입니다.

무형한 기운이 형상화 된 것이 유형의 물체인 생명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생명들도 수명이 다하면 무형의 원소로, 기운으로 돌아갑니다.(환원)그러니 다른 생명도 나의 생명도 개인의 것이 아닌 한울님의 소유요 일부일 뿐입니다. 스승님께서 각자위심을 버리고 시천주를 해야한다고 가르치시며 이것이 끊어진 천지의 운절 된 기운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 자살은 자기개체의 영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자기발현, 자기 진화의 통로를 막는 길입니다. 반면에 성.경.신(誠.敬.信)은 한울님의 우주적 진화를 돕는 일입니다.

① 한울님모심인 시천주를 위해 성.경.신(誠.敬.信)을 다해 스스로 수련하여 마음을 닦고, 가르침 대로 실천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뜻하는 바가 한울님의 감응으로 무위이화로 함이없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만사여의 하게 이루어지는 조화정 경지에 이르르게 될 것입니다.

② 한울님의 은덕과 스승님(최재우 수운 대신사님, 최시형 해월 신사님, 손병희 의암 성사님)들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내 몸 안과 밖에서 나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잊지않고 수도하면 무궁한 한울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한울님의 도를 깨달아 알게되는 만사지의 단계까지 나아가 지극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천도교의 마음공부와 실천적 삶

천도교의 심학(마음공부) 수련을 통해 한울님위하는 글인 주문 21자(지기금지 원위 대강 시천주 조화정)를 뜻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공경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외우며, 동경 대전과 법설을 공부 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상하귀천 막론하고 누구나 거룩하고 신령한 한울님을 모신 우주적 주체라는 인간관으로 변화됩니다.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 는 새로운 신앙방법과 수양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천도교의 종교적 체험인 주문 수련을 통해될 알게 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천도교수도원과 가정에서 심학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무극대도 동학 천도교의 발상지인 경주 용담 성지에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용담수도원이 있습니다. 또한 경술 국치 이후 국권회복에 남다른 결의로 3.1운동을 준비하시던 의암손병희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 심산유곡인 우이동 골짜기에 세상의 이목을 피해 수도장을 짓고 봉황각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의암성사는 독립운동을 대비하여 봉황각에서 천도교 고위공직자 483명을 49일씩 7회에 걸쳐 특별히 수심정기를 통한 연성 수련을 실시한 곳입니다. 현재도 우이동 등산길 초입에 천도교 성지 의창수도원이 있습니다.

천도교의 주문은 천도의 내용을 밝힌 글이며 한울님이 모셔진 근본원리와 이를 깨닫는 절차와 과정을 밝힌 글입니다. 정성 공경 믿음으로 수련하여 사람을 한울같이 섬기라는 가르침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알고 실천 한다면 자살예방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살의 가장 첫째 원인인 정신적 문제 중 우울증에 꼭 관심을 갖고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에게 안내 함은 중요합니다. 마음의 감기라고하는 우울증은 성적 저하,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휴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뇌질환입니다. 다행히 우울증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으로 초기 완쾌율이 2개월 내에 70-80%에 이르는 의학적 질환임을 안내하여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종교계가 힘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천도교 총무위원 김진순 심고 포덕 162년 5월 (2021년5월18일)

이웃에 관한 관심 (천주교)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차바우나 신부)

우리는 혼자 구원받지 않고
함께 구원된다.
그리고 하나가 구원되면
모두가 구원된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현대 사회 안에서 여러 복합요인들이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소외시키고 있고 이들의 자살 위험성을 높이고 있음

Q 교회는

진정 애절한 마음으로 자살로 죽음에 이른 연령을 위해 기도

남겨진 자살유가족을 돌봄

그와 같은 처지의 또 다른 이웃을 찾아야 함

이 시대의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임을 인지
자살 예방 실천은 개인과 신앙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어
자살 위기자를 구하는데 참여해야 함.



연대

- ✓ 혼자 죽었음.
- ✓ 자살의 원인은 죽은 사람 수 만큼이나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혼자 되었음.

책임

- ✓ 모두가 침묵한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없다.
- ✓ 하지만 '아무의 책임이 아니라면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 ✓ 이웃의 삶을 돌보고 연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책임



- '무관심의 세계화' 에 맞서 '연대의 세계화' 가 필요함.
- 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연대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필수요소임. (프란치스코 교황)
 - ②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모두 관심을 두고 연대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거점형 자살예방 사업

작은 공동체,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① 고위험군 대상 서비스 지원 확대
- ② 가톨릭 자살예방 네트워크 진행
- ③ 본당 중심형 마음돌봄 상담 캠페인



천주교 자살예방 활동 - 유가족 돌봄



유가족 미사 및 대상별 자조모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인과 그로 인한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매월 1회 월례미사 및 사별자 대상별 자조모임을 진행하여 신앙 안에서 위로와 애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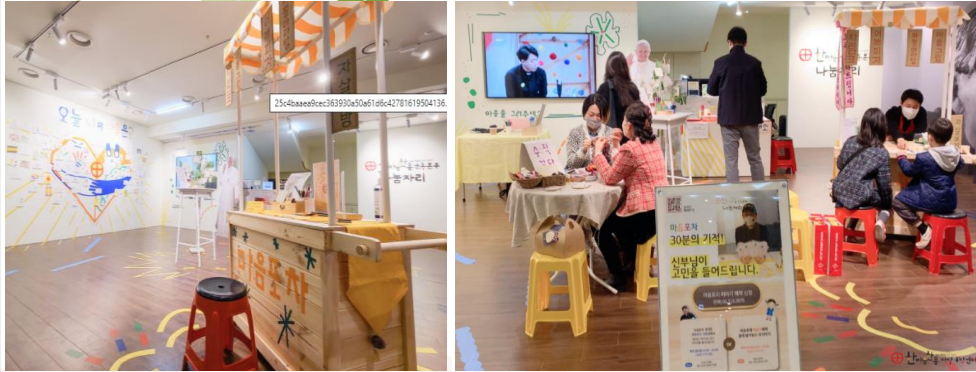
천주교 자살예방 활동 - 기도 캠페인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 캠페인

“이 세상에 자살생각을 할 만큼 힘든 일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익명의 신자들이 작성한 기도에 '좋아요'를 누르며, 누군가가 작성한 기도에 공감하고 함께 생명존중문화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기도 캠페인입니다.

천주교 자살예방 활동 - 상담형 캠페인



상담형 캠페인 “마음포차”

성직자 및 수도자에게 고민과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와 기도를 받는 캠페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함께 내담자를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것만으로도 자살예방 및 마음돌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자살예방 활동 - 자살예방교육



가톨릭 자살예방 교육

생명을 존중하고 희망과 사랑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천주교에서 가톨릭 영성을 담은 자살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성직자와 평신도의 자살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방안 세미나”의 토론문

윤 승 용 편찬위원장
(한국민족종교문화사전)

1. 두 분의 발제와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

두 발제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현황과 여러 예방방안들을 전부 일별할 수 있었다. 토론자가 미처 접하지 못했던 분야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두 분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유교수의 발제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먼저 종교의 본질을 안심입명의 기능, 생명존중가치의 교훈, 사회통합의 기능 등으로 지적하고, 자살의 요인들을 개인차원, 단체차원, 사회차원 등으로 분류해 그에 맞는 대응방안들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으로 종교집단의 자원을 고려해 종교계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담은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한 사업들은 주로 대중들에게 자살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며, 자살의 위기에 처한 자를 사전에 탐지하여 그들을 상대로 상담이나 예방조치를 하거나 자살한 이후 유족에 대한 종교적 배려에 중점을 두는 것들이다. 또한 사업의 성과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에는 종교계의 협력기구와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나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종교계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중심으로 각 종교들의 협력을 위한 소통의 통로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토론자가 보기엔 이번 유교수의 발제 내용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미 발간된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를 보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황이사장의 발제는 자살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는 현재 한국의 자살에 대한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자가 관심을 가진 것들은 종교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들이었다. 우선 한국의 자살율이 한동안 감소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 상황에 의한 경기부진과 실업증가 때문에 또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자살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G7의 가입을 앞두고 있는 나라에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자살율의 증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은 현재 한국의 주요 자살 원인으로 종교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정신문제(36.1%)가 경제문제(19.5%), 신체문제(17.4%)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의 주기에 따른 정신문제를 제외하면 정신문제 중에서 1순위가 만병(萬病)의 근원이라는 삶의 스트레스다. 끝으로 발제자가 제시한 정신문제 대처 방안이다. 정신문제가 자살원인에 직접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유발시

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 일반대응이 아닌 사회집단별 요구되는 특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충분히 공감 가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예방사업은 한국 종교계와의 협력 사업인 만큼 한국 종교계의 현상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압축적 성장에 따른 사회구조변동

한국인의 자살은 그 행태가 개인의 자발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적 문제로 귀착되긴 하지만 한국사회의 압축적 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동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그로 인해 야기된 우리사회 양극화와 개인 가치관의 혼란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물질문명은 급속히 성장한 데 반해, 제도 및 관념, 의식수준, 가치관 등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 ‘문화지체현상’이다. 도덕과 질서를 등한시하고, 윤리의식의 결여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 현재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한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더 진행될수록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어야 할 가족이나 종교, 지역이나 민족과 같은 공동체 문화가 급속하게 해체되어 간다. 종교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하늘이 내려주었던 숙명적인 집단의 인간관계는 점차 사라져가는 반면에 부와 권력의 욕망에 근거한 정치적, 경제적 인간관계만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인간은 자신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개인과 집단 간의 치열한 경쟁과 격심한 갈등상황에만 직면하게 된다. 개인은 사회적 연대를 떠나 점차 원자화되어, 더 이상 공동체적이고 우주론적인 자신의 위상(位相)을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결국 자살에 이른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과거의 1차 집단들을 다시 구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종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 같은 종교의 역할 관점에서 향후 종교계와의 자살예방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를 제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려 한다.

3. 종교계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몇가지 제언

첫째, 종교계와의 협력 방안은 한국의 종교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회문제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간의 인식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최근(2021년 3~4월) 한국갤럽이 전국(제주 제외)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종교인은 40%, 비종교인은 60%다. 종교 분포는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로 나타났다. 한국의 종교인 비율은 2014년 50%, 이번 2021년 조사에서는 40%로 줄었다. 종교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에 있다. 2014년 20대는 31%, 2021년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22%에 불과하다. 30대의 종교인 비율 역시 2014년 38%, 2021년 30%로 감소했다. 이러한 20·30대의 탈(脫)종교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와 전체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한다면, 현재 종교계가 종교인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자살예방대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운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40%의 종교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60%의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화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각 종교 역시 지역별 세대별 특성이 다르므로 종교상황에 맞는 사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30 세대의 탈종교현상에 맞는 청년층에 대한 특별한 자살예방 대책도 필요하다. 예컨대, 종교적인 상담이나 교육에 비종교인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종교적인 용어나 의례행위를 가급적 자제하거나 아니면 세속의 시민단체를 활용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자살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바로 종교이다. 그 때문에 종교의 역할이 자살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국의 종교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자살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하다.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결속을 통해 개인의 자존감을 확인시킨다. 이 같은 개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연대를 제공하는 것이 종교의 본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종교는 생명의 가치나 죽음에 관련된 사회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소박한 공동체로 이끌 수 있다. 시장(市場)의 비정함과 계급(階級)의 맹목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3의길 모색하는데 앞장설 자격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다종교상황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종교근본주의를 주장하며 이웃종교를 비방하거나 대형건물로 자기 교세나 과시하는 오만한 종교들이 많다. 이들 오만한 종교들은 인간의 신성한 생명을 보듬는데 나설 자격이 없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공동체 종교가 아니라면, 종교계에서 진행되는 자살예방운동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지키는 시민운동으로 평가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접근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우주적인 규범이나 절대적인 가치를 통해서만 심신(心身)의 영원한 안식을 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문화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종교문화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안심입명을 가져다주고 자살을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계가 모든 자살예방사업 전부를 끌어안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진행되거나 제안된 협력사업들을 보면, 기존의 종교 활동과 혼동되기도 하고 종교계가 나서지 아니해도 다른 일반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자살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다양한 대처방안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의학적 모델, 심리학적 모델, 사회적 모델, 경제적 모델 등이다. 이때 종교만이 행할 수 있는 종교적 모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에 맞는 협력사업들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런 다음 앞서 언급한 대로 종교의 본질에 가까운 협력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는 문화적 정체성과 개인의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결속에도 큰 기여를 한다.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제천의식(祭天儀式)의 하늘님 전통, 신들과의 화해를 통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무속전통, 단학(丹學)과 같은 끊임없는 자기 수련전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종교적인 전통들은 종교사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인 체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수 천 년 이어온 한민족의 체험적인 문화가치들이다. 현실적으로 사회관계를 조화롭게 하며, 하늘님을 통한 자연과 생명존중의식을 가지게 하며,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정체감과 자존감을 가져다주었고, 그 뿐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자존과 결속을 다질 수 있게 한민족의 삶과 더불어 민족문화의 전통을 이루어 온 것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다시 현장에서 기능하게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 문화전략이 된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들을 대폭 수용한 종교가 바로 한국의 민족종교들이다. 향후 한국의 모든 종교들이 한국인의 문화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한국적인 종교가 되고, 각기 특색 있는 협력사업들이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 협력방안

서 일 환 과장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1. 자살예방정책 현황

○ 사회 내 자살위험 요인 관리

- '13~'19년 자살사망자(9.1만명) 데이터 전수조사 실시,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근거 기반의 예방정책 수립, 지자체 등에 분석보고서 제공
-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생명존중 인식개선 추진, 자살고위험시기(3~5월) 지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 집중 홍보, 고위험군에 안부문자 발송 등
- 전 국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13~현재 393만명),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21~)
- 자살보도 권고기준, 영상콘텐츠 가이드라인 등 확산 노력, 언론모니터링단 운영 및 자살유발정보 집중 신고대회 개최 등을 통한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 운영
- 민간단체 및 지자체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지원

○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 응급실로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자살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법률·행정, 임시주거, 학자금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 사회적 파장이 큰 연예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관련 협회 및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
- 교량, 건물옥상 등 자살장소와 농약, 번개탄, 신종 자살수단 등 관리

○ 자살예방 정책 인프라 강화

- 중앙에 정책지원기구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
- 지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확충,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배포
-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황 관리, 정책 추진상황 점검

2. 자살예방 분야 종교계의 역할

- '11년 자살예방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종교계는 교리, 정서적지지 등을 통해 자살예방에 있어 큰 역할을 해옴
- 최근에는 정부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협력도 추진 중
 - '18년부터 노동계, 재계, 언론계 등과 함께 '생명존중 민관협의회'에 참여
 - '19년에는 종파별 '생명을 살리는 자살예방 지침서' 발간
- 종교계는 국가가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크게 역할
 - (국가 정책) 제도, 시스템, 예산,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 측면의 접근
 - (종교계) 물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 정서적 지지

< 종교계 자살예방사업 제안 >

- 생명존중 문화 캠페인 (종교계-정부 합동)
- 교인 대상 자살예방 교육 (기 개발된 지침서 활용)
- 고위험군 교인 대상 심리상담
- 국민(교인)들과 가장 가까워서 관찰하면서 우울·스트레스 상태의 교인들이 자살생각까지 이르지 않도록 정서적지지, 고위험군 발견시 자살예방센터에 연계